

■ 팀 소개 ■

건설공정거래팀 소개

지평은 건설부동산 분야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건설공정거래 사건 전담팀을 운영합니다. 건설공정거래 전담팀은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인력의 실무감각을 바탕으로 건설부동산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공정거래 사건, 특히 건설담합과 하도급 쟁점에서 남다른 기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건설부동산 분야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접목하여 건설공정거래에 특화된 전문 기량을 갖추었습니다. 지평은 일찍이 건설부동산 분야 외에 공정거래 분야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세계적인 IT 기업인 퀄컴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내는 한편, 국내에서 헌법소송으로까지 번진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분쟁에서 공정거래 이슈를 담당하여 조기에 분쟁을 종식시키는데 일조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각종 조사 및 심결 사건에서도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평의 건설부동산팀은 위와 같은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건설공정거래 사건을 보다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전문가의 참여 하에 건설공정거래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공정거래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의 전문위원 및 변호사가 사건에 직접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책국 제도개선 과장, 심판행정담당관을 거쳐 조사국장, 독점국장, 상임위원 등을 지낸 장항석 고문,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국, 하도급국, 서울사무소, 시장감시국에서 재직했던 진연수 전문위원 및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총괄과, 송무담당관실, 약관심사과, 카르텔 총괄과, 국무총리실 금융정책과, 고객지원담당관실, 특수거래과 등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갖춘 손계준 변호사 등이 사건에 직접 참여하여 실무에 최적화된 법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그 외에도 분쟁 발생 전 단계에서 법적 조언을 통해 공정거래 이슈를 해결해 온 자문 변호사와 분쟁 단계에서 공정거래 소송 등을 수행한 소송 변호사가 한 팀을 이루어 모든 유형의 공정거래 쟁점에 대하여 최선의 대응방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건설공정거래 전담 변호사 소개] (링크)

지평의 건설공정거래 전담팀이 특히 주력하는 분야는 건설담합과 하도급 쟁점으로, 건설담합 사건의 경우 사전 점검을 통한 최적의 대응전략 수립부터 조사가 개시 후 의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의견제시 및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에 이르기 까지, 전 과정에 걸쳐 각 단계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하도급 쟁점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국에서 근무했던 진연수 전문위원의 실무 감각과 하도급총괄과에서 근무하면서 하도급 분야에 관한 논문까지 발표한 손계준 변호사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외에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나 불공정거래 행위 등 다른 공정거래 이슈에 대해서도 탄탄한 실력과 실무 경험을 갖추고 있어, 건설업계의 특수성을 반영한 어떠한 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도 남다른 기량을 발휘할 것입니다.

[건설공정거래 사건 문의]

송한사 파트너변호사

- Tel: 02-6200-1734
- Email: hssong@jipyong.com

손계준 변호사

- Tel: 02-6200-1727
- Email: kjson@jipyong.com